

<삼강문>의 구성방식과 작가의식

정 준 식*

차 례

- | | |
|------------------------------|---------------------------|
| I. 들머리 | III. <삼강문>에 나타난 최찬식의 작가의식 |
| II. 추노담의 전통에서 본 <삼강문>의 구성 방식 | IV. 마무리 |

I. 들머리

우리 소설사에서 ‘惡奴’의 존재가 뚜렷이 부각된 시기는 대략 17세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에 창작된 <사씨남정기>의 ‘납매’와 ‘설매’, <창선감의록>의 ‘계향’과 ‘난향’, <운영전>의 ‘특’ 등이 ‘악노’의 전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경제적 이익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잠시 악인의 계약에 동참하는 보조적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에게서 인간적 자각에 기초한 개체적 인물로서의 면모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推奴系 小説¹⁾에 등장하는 ‘악노’는 의식적으로 각성한 노비로서 신분해방에 대한 강한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推奴系 小説’이란 도망노비의 추쇄를 둘러싼 主-奴의 대립·갈등과 그 해결이 서사전개의 중심축을 이루는 일련의 소설을 가리킨다. 정준식, 『추노계 소설의 갈등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고소설연구』 제7집, 한국고소설학회, 1999, 205쪽.

집념을 가지고 주인과 극단적으로 투쟁한 인물이다. 그 투쟁이 노비의 실질적인 해방을 가져왔든 그렇지 않든, 우리 소설사에 ‘악노’가 개체성을 지닌 인물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후기에 진행된 전근대적 신분제의 동요 및 해체는 바로 이들에 의해 추동되어 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추노계 소설은 성장한 노비, 자각한 노비의 신분해방을 위한 투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바, 본고에서 다루게 될 <삼강문>은 추노계 소설 중에서도 가장 후대의 작품이다. <삼강문>은 1910년대의 대표적 신소설 작가였던 최찬식이 창작한 소설²⁾인데도 그간 연구자들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자료의 희소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현재 <삼강문>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영인본이 유일한데, 그나마 복사 상태가 좋지 않아 면당 몇 줄씩은 판독하기 어렵다. 그만큼 자료를 구하고 읽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뜻이다.

<삼강문>에 관해서는 필자가 추노계 소설의 형성 경로를 다루는 자리에서 개괄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³⁾ 이 논의에서 필자는 <삼강문>의 전반부는 작가 최찬식이 새롭게 창작한 것이고 후반부는 1906년 《帝國新聞》에 연재된 <殺身成仁>의 내용을 부연 확대한 것으로 보았다. 원래 추노계 소설은 조선후기에 구비로 전승되던 ‘복수설 유형’의 推奴說話를 근간으로 삼은 것이다. <살신성인>→<삼강문>으로 이어지는 계열은 ‘복수설 유형’의 서사구조를 그대로 물려받은 반면, <김학공전>→<신계후전>→<탄금대>→<박만득전>으로 이어지는 계열은 ‘복수설 유형’의 서사구조를 크게 변용한 것이다. 이런 도식을 통해 필자는 <김학공전>과 <살신성인>이 ‘복수설 유형’의 추노설화를 소설화한 이후 두 작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이 지속적으로 산출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⁴⁾ 이 논의에 힘입어 그동안 최찬식의 작품이면서도 그 면모를 전혀

2) <삼강문>은 138면 분량이며 1918년 11월 11일 덕흥서림에서 초판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되었다(하동호, 『최찬식의 작품과 개화사상』,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55쪽). 그런데 필자가 입수한 연세대 도서관본의 경우 발행시기 및 분량은 앞의 것과 같지만, 발행소가 영풍서관으로 되어 있다. 이는 <삼강문>이 같은 시기 두 출판사에서 동시에 간행된 것임을 말해준다.

3) 정준식, 『추노계 소설의 형성과 전개』, 세종출판사, 2004, 165-170쪽.

알 수 없었던 <삼강문>의 존재가 새롭게 부각되었고, 그것이 조선후기 추노계 소설의 서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주로 <삼강문>의 제재적 근원과 형성과정을 밝히는데 치중하였을 뿐 구체적인 작품론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삼강문>의 구성방식과 작가의식을 탐구하여 이 작품이 추노계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이와 같은 논의가 <삼강문>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추노담의 전통에서 본 <삼강문>의 구성방식

<삼강문>은 신소설 작가 최찬식이 1918년에 창작한 소설이다. 이 작품은 이진사의 노비였던 정또씨의 신분상승 과정을 전반부로 삼고, 정또씨의 큰아들(대봉)이 이진사를 살해하는 과정 및 이진사의 아들(기동)이 복수를 실현하는 과정을 후반부로 삼았다. 전반부는 최찬식이 새롭게 창작한 부분이고, 후반부는 1906년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제국신문》에 연재된 <살신성인>의 내용을 부연 확대한 것이다. 노비서사의 전개과정에서 볼 때, <삼강문>은 신분해방을 열망하는 조선후기 私奴婢의 성공과 좌절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노비의 좌절만을 다룬 기존의 추노계 소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전대소설의 서사골격에 최찬식의 창작 부분이 가미되면서 나타나게 된 이러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장에서는 <삼강문>의 구성방식을 전·후반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에 다시 이를 총괄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1. 전반부, 노비의 자각과 신분해방의 실현

<삼강문>의 전반부는 한 마디로 ‘자각한 노비의 신분해방기’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노비가 전근대적 신분제의 모순을 절감하고 치밀한 계

4) 정준식, 앞책, 143-197쪽.

획을 세워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해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근대적 주체’를 발견하게 된다. 대부분의 추노계 소설이 노비의 일방적인 좌절만을 강조한 것에 비하면 <삼강문>의 전반부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신분해방을 위해 주인에게 필사적으로 대항한 노비들은 예외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 그간의 노비서사가 보여 준 불변의 법칙이었다. 그런 점에서 <삼강문>의 전반부는 기존의 노비서사에 대한 일대 반역인 셈이다. 이 엄청난 반역을 시도한 최창식이 “일제식민주의 최고의 나팔수”⁵⁾였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삼강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평가가 가능할지 가늠해 볼 일이다.

<삼강문>의 작가는 처음부터 노비를 “탄성이 인후하고 풍치가 준수”할 뿐 아니라 재산이 풍족하여 “항상 공익(公益)과 자선사업(慈善事業)에 힘쓰는(2면)”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노비에 대한 작가의 시각이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는데, 작가의 애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작품의 전반부에는 남다른 수완으로 자신의 밑바닥 인생을 상층으로 끌어올린 조선후기 사노비의 탁월한 현실대응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작가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은 장본인은 다른 아닌 온양 이진사의 노복 정또쇠이다.

정또쇠는 겉으로 보기엔 그저 충직한 노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항상 불합리한 신분제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여기서 그 한 예를 들어 보자.

가련호도다 이놈의 일신이여. 이목구비도 남과 같고, 오장육보도 남과 다름이 없것만은, 엇지호야 이갓치 천호 인물이 되야서, 호날이 주신 사람의 권리를 보전치 못하고, 부모에게 맞은 귀중호 혈육을 자유치 못하니, 슬프다, 이놈의 일생이여. 장리에 무슨 영광을 보자고 이 세상에 살며 장리에 무슨 희망이 잇스라고 이 세상에 살니오. 가련호도다, 이놈의 창호 장리이여.-그러나 텃디 리치논 순환무궁호나니, 호시 음디가 양디 되야 이갓치 천호 놈도 엇지 호면 괴반을 벗고 사름의 권리를 회복호야 호로라도 이 세상에서 스름 노릇을 호야보고 가리오. (<삼강문>, 4면)

5) 최원식, 「1910년대 계몽문학의 두 양상」,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107쪽.

정또쇠는 천한 노비로 태어나서 평생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전근대적 신분제의 모순에 관해 깊은 성찰을 보여주는 정또쇠의 모습에서 우리는 “천하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天下에 豈有斯人麼잇가]”⁶⁾라며 절규하던 <어복손전>의 어복손을 떠올리게 된다. 말하자면 이 대목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잘못이 없는데도 양반의 매질을 감내해야 하는 노비야말로 거북이나 뱀새보다 못한 존재라는 어복손의 통절한 자각이 정또쇠의 목소리로 달리 표출된 셈이다. 조선후기 사노비의 내면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이 대목은 노비계층이 신분해방을 욕망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원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정또쇠의 이런 자각은 곧바로 돈과 배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평생을 주인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는 “상던에게 봉공하는 여가에는 틈”히 집신을 삼는다 지극을 맨다 잠시라도 혼가홀 썩가 업시 일변으로 즈기의 실익을 구하야 푼 “전전이 더금(5면)”을 하게 된다. 세상살이에서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악착같이 저축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또쇠에게 돈이란 신분해방을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할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돈보다 더 절실한 문제로 글을 배워야 함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하늘 이치는 지공무사하고 사름의 권리는 다갓치 가졌나니, 지공무사하
하늘 밋헤 권리 가진 스릅으로 엇지하야 량반 상놈의 구별이 잇서, 량반은
즈손 더”로 영화부귀를 누리고, 상놈은 즈손 더”로 빈천곤궁을 견디지
못하며, 심지어 상놈은 글까지 비호지 못하느 리치가 세상에 어더 잇스리
오. 이는 상놈된 그 사름의 어리석은 ㅅ둑이라. (<삼강문>, 6면)

데일 조건으로 생각하느 바는 물론 엇던 사름이던지 하늘이 주신 즈기
권리를 상실하고 남에게 압제를 밧는 것은 결코 상당흔 지식이 업는 것이
오, 상당흔 지식이 업는 것은 물론 상당흔 학문이 업는 ㅅ둑이니, 나도 역
시 괴반을 벗고 스람의 권리를 회복하야 장리에 영광을 바라고자 홀진디,
일즉이 학문을 힘쓰느이만 갓지 못하도다. (<삼강문>, 6면)

6) 《신단공안》 제7화 <어복손전>, 『제국신문』 1906. 11. 22.

조선 사회에서 글(한문)이란 양반의 전유물이며 양반을 양반답게 하는 필수 요건이다. 그러니 노비가 글을 배운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정또쇠는 바로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상놈은 글을 배우지 못하는 이치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노비가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남의 압제를 받게 된 원인이 글을 배우지 못하고 지식을 갖추지 못한 데 있다고 보고, 스물다섯의 늦은 나이에든 불구하고 주인 이진사에게 청하여 글을 배우게 된다. “니가 만일 글을 못할 것 같으면 니 일신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리라(8면)”는 결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학문이 깊어지게 된다. 그의 공부가 소동파·한 퇴지와 겨룰 만하고 저축한 돈이 만 냥에 이르자, 정또쇠는 단순히 노비신분에서 벗어나기만 하려던 애초의 마음과는 달리 ‘양반노릇’을 해볼 욕심까지 품게 된다. 그러나 조선의 폐쇄적인 인제등용제도를 생각할 때 그의 이런 욕심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썬에 지공무스흔신 하느님씨 육신도 갖치 타고 권리도 갖치 밧엇거늘, 어이하야 량반이니 상놈이니 하는 종족의 구별이 잇서, 량반에 종족는 디〃로 량반노론나 디고 상놈의 종족는 디〃로 상놈노릇만 하야, 쇼위 량반이라 하는 졌는 자〃손〃이 영화부귀를 누리며, 쇼위 상놈이라 하는 자난 자〃손〃히 하천을 면치 못하고 량반에 압제하에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짜님이 이게 무슨 리유이뇨. 디더 사릅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기인의 자격을 짜라 등분이 업지는 못할 것이니, 그런고로 상등 지식을 가진 스톨은 반다시 상등 더우를 밧을 것이오, 중등 졌격을 가진 사릅은 맛당히 중등 더우를 밧을 것이며, 하등에 지나지 못하는 졌는 물논 하등 더우를 밧는 것이 덩당흔 일이라. 그런즉 아모리 량반의 자식일지라도 하등 인물에 지나지 못할진딘 반다시 하등 더우를 밧을 것이오, 비록 상놈의 자식일지라도 상등 인물의 자격을 가졌을 것 같으면 못지 말고 상등 더우를 밧는 것이 엿지 하닐이 덩흔 리치가 아니리오. (<삼강문>, 9-10면)

정또쇠는 班常의 법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조선의 신분제도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능력은 배제하고 오직 문벌에 따라 사람을 등용하는 잘못된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 “량반”이니

“상놈”이니 가리지 말고 개인의 자격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또쇠는 당대의 불합리한 제도를 비판하고 나름의 대안을 모색해 보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심한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던 차에 “과거전령”이 나오는 것을 보고 “나도 과거 좀 보아 보리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리두에 다른 희망이 업스리(11면)”라 여기고 이진사에게 말미를 얻어 서울로 올라간다.

이때부터 양반이 되기 위한 정또쇠의 노력은 본격화된다. 그는 상경 길에 광주 선비 이덕경을 만나 자신을 온양 선비 정용운이라 소개하고 그와 함께 서울로 가는데, 정또쇠에게 이덕경은 단순한 길동무가 아니라 그의 발신을 적극적으로 도운 은인인 셈이다. 정또쇠는 이덕경을 양반의 모델로 삼고 철저하게 그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서울 선비들로부터 ‘점잖은 시골 선비’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⁷⁾ 하지만 정작 정또쇠는 과거에 합격하고 이덕경은 낙방하는 믿기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이덕경은, “나는 온양 절골 사는 리진스의 로복(17면)”이라며 자신의 근본을 토로하는 정또쇠에게, “상놈이 량반 더엿것다, 지조만 잇스면 무슨 벼살을 못흐깃길니 장리 걱정을 흐신단 말이오.(18면)”라며 정또쇠를 위로하고 그의 발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덕경의 이러한 태도는 정또쇠가 평소 불만을 가졌던 班常의 차별을 무색케 한다. 신분보다 재주를 우선시하는 이덕경의 존재는 분명 작가에 의해 조작된 인물일 터, 작가는 양반(이덕경)과 노비(정또쇠)의 평등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관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관계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양반의 의식변화는 주인 이진사에게 서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정또쇠의 신분해방은 이진사의 관대한 아량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진사는 정또쇠에게 글을 가르쳐 세상에 대해 눈뜨게 했고, 그가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자 즉시 노비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자 주저 없이 허락하였다. 그의 이런 관대함은 그간 정또쇠가 보여준 충심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진사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던들 정또쇠의 신분해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처럼 <삼강문>의 전반부에는 주인 이진사와 노비 정또쇠의 조화로운 관계가 유독 강조되어 있

7) <삼강문>, 13-14면.

다.⁸⁾ 이 부분은 양반의 의식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전근대적 신분제의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작가의 경험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노비의 입장을 도외시한 것이기에 그대로 신빙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사실 전근대적 신분제의 청산은 양반층의 의식변화만으로 불가능하며, 노비의 자각과 그에 기반한 실천적 노력이 뒤따를 때라야만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강문>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조화로운 주노관계가 철저히 ‘돈’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또쇠는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할 때도 농사 품삯으로 이진사에게 100냥을 주었고,⁹⁾ 온양을 떠나 광주로 이사할 때도 지난날의 정의를 생각하여 1000냥을 건네준 바 있다.¹⁰⁾ 노비가 준 돈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이진사의 굴욕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조선후기 몰락양반의 비참한 처지를 읽어낼 수 있다. 스스로의 노력 없이 노비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았던 이진사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반면, 신분제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땀땀이 돈을 모으고 부지런히 글을 익힌 정또쇠는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그 결과 정또쇠는 경제력과 신분에서 이진사를 능가하는 처지로 부상하였고, 이진사는 계속 노비에게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정또쇠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이진사의 태도는 어쩔 수 없이 대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몰락양반의 초라한 선심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의 변화에 둔감한 몰락양반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노비의 신분해방 의지를 꺾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삼강문>의 전반부는 ‘돈’이라는 새로운 가치개념이 ‘신분’이라는 기존의 가치개념을 무력화하는 과정을 여실히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이진사가 애초부터 돈을 바라고 노비를 속량한 것은 아니다. 노비를 속량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 돈이 그 매개가 되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삼강문>은 노비가 투쟁을 통해 신분해방을 이루려고 했던 기존 소설의 노비형상을 수용하는 대신, 主-奴의 조화로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해가는 바람직한 노비형상

8) 추노계 소설 가운데 주인과 노비의 조화로운 관계를 주조하고 있는 작품은 <삼강문>뿐이다.

9) <삼강문>, 12면.

10) <삼강문>, 26면.

을 창조했다. 이 점이 바로 여타의 추노계 소설과 구별되는 <삼강문>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후반부, 추노의 부당성과 주노갈등의 심각성

앞서 <삼강문>은 주노갈등 대신 主-奴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어디까지나 전반부에만 한정해서 내려질 수 있다. 이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오히려 <삼강문>이 기존의 추노계 소설을 답습하여 주노갈등을 주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가난의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된 주인의 추노행차, 어렵사리 획득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비들의 거센 반발, <삼강문>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주노갈등은 이와 같이 주인과 노비의 서로 다른 지향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것이기에 더욱 치열하고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정포쇠가 광주로 내려간 후로 가세가 기울어 가난을 면치 못하던 이진사 부부는 40이 넘는 나이에 가까스로 자식을 잉태하게 된다. 그러나 해산이 임박했는데도 구완할 비용마저 마련하지 못하자, 이진사는 뗏목치 못한 일인 줄 알면서도 정포쇠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간다.¹¹⁾ 이때 남편의 행위를 탐탁지 않게 여긴 이진사의 부인은 “넋적에도 종 출연 갖다가 성명을 바린 일이 잇스니 비록 굴며 죽을지언당 그런 일은 못흐깃소.(35면)”라며 적극적으로 만류한다. 또 친구인 김진사도 노비 정포쇠에게 찾아가는 것은 부당하고 위험한 일이라며 극구 말렸지만,¹²⁾ 이진사는 끝내 이를 무시하고 정포쇠를 찾아가다. “종 출연”이라는 것은 주인이 도망노비를 찾아가서 신공을 거둬들이는 추노 행위를 뜻한다. 조선 후기 양반들 사이에서는 종을 찾아가면 십중팔구 죽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런 위기감은 가난한 양반이 추노를 하려다 노비에게 피살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나타나게 된 경험적 인식의 소산이

11) <삼강문>, 32-36면.

12) “당룡운이가 형세를 흐랑으로 피히 와서 사는 터에 형님이 아모리 웅식홀지라도 비루하게 차져가는 것도 부당하고, 쏘는 룡운이가 비록 인후흔 사름이지만은 형님을 모고 조아홀 사둬야 잇쇼. 아니홀 말로 이런 일이 위험흔 슈도 잇습닌다. 형님은 다시 생각하야 가시지 말기를 천만 번 바라오.” (<삼강문>, 40면)

다.¹³⁾ 때문에 우리는 두 사람의 만류를 뿌리친 이진사의 무리한 추노행차에서 곧 그에게 불어 닥칠 불운을 예감할 수 있다.

옛 정의만을 생각하고 정포쇠를 찾아간 이진사는 잠시나마 후한 대접을 받으며 편한 날을 보내게 된다. 여기서도 정포쇠는 이진사에게 돈 3000냥을 서슴없이 내줄 정도로 후덕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¹⁴⁾ 그를 끝까지 관대한 인물로 몰아가려는 작가의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정포쇠의 아들 대봉은 아버지가 거지같은 사람에게 공순한 것이 못마땅하던 중 이진사가 옛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주저 없이 그를 해칠 궁리를 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이진사에 대한 대봉의 반감을 확인할 수 있다.

니가 앓가 들으닛가 간언스럽게 설빈을 흐며 살녀달오 구제를 히다오
 홀 적에는 외면으로는 듯기 쫓게 흐는 말이나, 속 니용인즉 종 출연을 온
 모양이오구려. 이리나 저리나 큰일 낫소. 저놈을 만일 흡족하도록 슈용을
 흐야쥬면 문턱이 달토록 각금 " " 올 터이오, 거절을 할 것 갓흐며(면-필
 자) 심술을 부리며 가문 하적을 할 터이라. 그런즉 우리가 저놈의 마음을
 만죠히게 흐야쥬자 흐니 속절 업시 떼거지가 날 것이라. 거절을 흐자흐니
 저놈이 만일 심술을 부릴 것 갓흐면, 이 건처에서는 우리 집을 아즉 그것
 치 안케 아논디 우리가 갓을 쓰고 형세를 엇지 혼단 말이오. (<삼강문>, 46면)

대봉은 분명 정포쇠와는 다른 생각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옛 주인이라는 구실로 노비에게 돈을 후려내는 양반들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주인을 잘 대접하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돈을 후려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노비 신분으로 환원될 판이니, 그로서는 가장 완전한 해결책으로 '주인 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봉의 이러한 태도는 조선 후기 추노과정에서 선량한 노비

13) 가난한 양반이 추노과정에서 노비들의 저항을 받아 곤혹을 치른 사례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지승중, 「조선후기 주노관계와 노비통제」, 『한국 사회구조의 전통과 변화』, 문학과지성사, 1994, 63-65쪽 : 전형택, 『조선 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89, 198-199쪽.

14) <삼강문>, 40-48면.

들이 탐욕스런 주인에게 당해야 했던 再贖, 疊贖 등의 비리추노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서,¹⁵⁾ 그 저변에는 어렵사리 획득한 부와 신분해방을 일거에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첫 번째의 주도갈등은 노비의 일방적인 우위로 나타난다. 이진사를 죽이려던 대붕의 계획은 그의 노복 차돌이에 의해 착실히 수행된다. 차돌이는 대붕이 시킨 대로, 돈을 받고 돌아가는 이진사를 살해한 후 시신을 구렁에 던지고 흙을 덮어 은닉한다.¹⁶⁾ 차돌이 또한 노비였기에, 일이 성사되면 3000냥을 넘겨주겠다던 대붕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멀쩡한 사람을 죽인 일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정포쇠의 추궁 끝에 사건의 전말을 실토하게 된다.¹⁷⁾ 평소 후덕하기로 소문이 난 정포쇠에게 느닷없는 주인공 살해 사건은 큰 흠결이 아닐 수 없다. 아니 그보다도, 광주 일대를 호령하던 그의 집안이 이 일로 인해 일시에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컸을 것이다. 그가 끝내 양심을 저버리고 사건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은 것을 보아 이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포쇠는 차돌이를 멀리 달아나게 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는 한편, 대붕으로 하여금 이진사의 영혼에 사죄토록 하였으며, 소봉을 시켜 온양 이진사의 부인에게 돈 3000냥을 갖다 주도록 했다.¹⁸⁾ 이렇게 하는 것이 죽은 이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초라한 행색으로 노비를 찾아갔다가 비명횡사한 이진사의 비참한 말로에서 우리는 전근대적 신분제의 종말이 목전에 와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진사의 죽음이 곧 정포쇠 일가의 자유를 보장해 준 것은 아니다. 이진사에게는 ‘기둥’이라는 유복자가 있었다. 기둥은 아버지 없이 태어나 외롭게 성장하던 터에, 글방의 아이들조차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리자 아버지의 존재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11살이 되어서야 어머니로부터 부친 소식을 듣게 되고, 15세가 되어서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부친의 원수를 갚겠다며 광주로 내려간다.¹⁹⁾ 앞서 이진사의 광주행이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기

15) 전형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89, 182-184쪽.

16) <삼강문>, 49-52면.

17) <삼강문>, 52-54면.

18) <삼강문>, 55-58면.

19) <삼강문>, 58-68면.

위한 추노였다면, 기동의 광주행은 이진사를 죽인 노비에게 복수하기 위한 추노이다. 그러니까 노비에게는 기동이 이진사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셈이다.

광주로 내려간 기동은 부친의 친구인 김진사에게 의탁하여 복수의 때를 기다린다. 그러던 중 평소 김진사의 사랑에 드나들던 정또쇠가 기동의 재주에 호감을 갖게 되고, 기동 또한 정또쇠의 인품을 흠모하게 된다.²⁰⁾ 두 사람이 서로의 신분을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런 이유로 정또쇠는 기동을 사위로 삼기 위해 김진사에게 허혼을 부탁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한다. 물론 김진사가 거절한 것은 정또쇠의 아들이 이진사를 살해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또쇠는 기동을 포기할 수 없었다. 불안한 자신의 신분적 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도 기동과 같은 재주 있는 양반의 자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계략을 꾸밀 수밖에 없었다. 정또쇠는 김진사가 출타한 틈을 타 기동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달래고 으르고 칼로 위협하여 기동을 자신의 딸 정옥과 강제로 결혼시키게 된다.²¹⁾ 이 일로 정또쇠는 “만금을 어든 듯이 마음이 만족(88면)”하여 기뻐할 뿐 자신에게 닥칠 불운은 전혀 예감하지 못했다.

두 번째의 주노갈등은 기동과 대붕이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결혼 후 김진사를 방문한 기동은 김진사로부터 “원수와 장가를 들더라도 백년희로만 흐면 고만이나(91면)”는 질책을 받고, 비로소 원수의 사위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 기동을 따라갔던 대붕 또한 문 밖에서 이 말을 엿듣고, 기동이 자신이 살해한 이진사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²²⁾ 그런데 기동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붕과의 갈등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대붕은 즉각 집안의 노비들을 화원으로 불러 기동과 김진사를 죽이기로 모의했다.²³⁾ 그런데 기동의 처(정옥)가 그 말을 듣고 계책을 궁리한 끝에, 기동과 옷을 바꿔 입고 대신 살해됨으로써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정옥은 죽기 직전 기동에게 세 가지 유언을 남겼던 바, 자신의 시신을 내갈 때 따라 나

20) <삼강문>, 69-74면.

21) <삼강문>, 75-88면.

22) <삼강문>, 89-92면.

23) <삼강문>, 93-99면.

가서 도망할 것, 원수를 갚더라도 부모님과 작은 오빠는 살려 줄 것, 재혼은 이 덕경의 딸 난향과 할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²⁴⁾ 정옥의 희생으로 위기를 넘긴 기동은 여복을 한 채로 관가로 가서 군수에게 고변한다. 그러자 군수는 대봉을 잡아들여 자백을 받은 후 대봉을 처형하고 정옥의 열행을 황제에게 상소한다.²⁵⁾ 결국 추노를 둘러싼 주노갈등은 주인도 죽고 노비도 죽는 비극을 연출하며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삼강문>의 후반부를 이루는 ‘이진사의 추노여정’과 ‘기동의 복수여정’은 18세기 인물인 이광정(1674~1756)의 <復讐說>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복수설>은 추노를 나간 주인이 노비에게 살해되자 그의 아들이 노비에게 복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김학공전>, <신계후전>, <탐금대>, <박만득전>, <살신성인>, <삼강문> 등 추노계소설로 지칭되는 작품들은 모두 <복수설>의 서사구조를 수용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주인의 추노과정과 그 아들의 복수과정을 가장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은 <삼강문> 뿐이다. 이를 통해 최찬식이 ‘이진사의 추노여정’과 ‘기동의 복수여정’을 재현하는 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주인이 노비를 찾아가는 과정, 주인에 대한 노비 부자의 엇갈린 반응, 노비의 주인살해 동기 및 과정, 주인 아들의 복수여정 등은 조선후기 추노과정에서 빚어졌을 법한 주노갈등의 다양한 국면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추노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몰락한 주인의 절박한 처지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노비의 필사적인 대응을 현실감 있게 형상화한 점은 이 작품이 기존의 추노계 소설을 극복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 나아가 이 대목은 조선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몰락한 양반과 성장한 노비의 역전된 관계를 탁월하게 그려낸 것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24) <삼강문>, 103-104면.

25) <삼강문>, 108-112면.

26) 정준식, 『추노계 소설의 형성과 전개』, 세종출판사, 2004, 143-197쪽,

3. 전 · 후반부의 이질성과 통속적 결말방식

지금까지 검토한 바, <삼강문>은 ‘작가의 창작’과 ‘전대소설 수용’이라는 두 이질적인 요소를 전 · 후반으로 삼았다. 전반부는 정토쇠의 신분해방 과정을 긍정적으로 그려낸 것이고, 후반부는 대붕의 좌절 과정을 부정적으로 그려낸 것이다. 이를 통해 노비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토쇠는 이진사와 이덕경의 지나친 환대가 아니었다면 신분해방을 이룰 수 없었다. 말하자면 두 사람은 작가가 정토쇠를 위해 설정한 원조자인 셈이다. 노비인 정토쇠가 글을 배워 과거에 급제하고 안동 군수로 부임하게 된 것은 모두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처럼 <삼강문>의 작가는 전반부를 통해 정토쇠에게 유별난 관심과 애정을 보이면서 그의 신분해방을 당위적 현실로 구현하고 있다. 적어도 전반부만을 떼어서 본다면 <삼강문>은 이전의 추노계 소설이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과업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장한 노비의 자신감과 그를 바탕으로 한 신분해방 과정을 현실의 논리에 입각해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반부에 이르러 정토쇠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되며, 작가의 관심은 이진사와 그의 아들 기동에게로 옮겨간다. 주인공이 정토쇠→이진사→대붕으로 바뀌면서 서술의 초점이 흐려져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진사를 통해서는 추노의 실패를 다루었고, 기동을 통해서는 복수의 실현을 다루었다. 전반부에서 추노의 조화로운 관계를 설정하여 정토쇠의 신분해방 과정을 공들여 그려낸 작가가 후반부에 와서 왜 새삼스럽게 추노갈등을 주조하여 주인도 죽고 노비도 죽는 비극을 연출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작가는 노비의 신분해방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복수이야기로 방향을 전환한 바, 이런 파탄의 원인은 전적으로 전대소설을 무리하게 수용한 데 있다.

사실 <삼강문>의 후반부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그 나름의 소설적 성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신분해방을 이룬 정토쇠 가족에게 이진사가 출현하면서 시작되는 후반부는 조선후기 추노현장의 내밀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재현해낸 것이다. 추노를 만류하는 가족들의 근심어린 표정, 단신으로 추노를 단행한 몰락 양반의 초라한 행색, 주인에 대한 노비들의 반감, 진정한 자유를 위한 노비들의

필사적인 대응 등은 조선후기의 추노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것이다.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다든가 그런 노비가 관에 의해 처벌되는 모습도 조선초기부터 끊임없이 있어왔던 추노현장의 살벌한 분위기를 재현해낸 것이다. 이처럼 <삼강문>의 후반부는 추노계 소설 중에서도 조선후기 추노를 둘러싼 추노갈등을 가장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취를 보이고 있다. 다만, 노비 추쇄를 둘러싼 주인과 노비의 갈등에서 노비의 비참한 최후를 그려내고 있는 것은 당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작위적인 결말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강문>의 후반부는 전대소설에서 통속화된 이러한 결말과 손쉽게 타협함으로써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전근대적 신분질서의 지속을 염원했던 조선조 사대부들의 보수적인 사고를 대변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본다면 <삼강문>은 차라리 전·후반을 따로 떼어서 작품화했다면 더 높은 소설적 성취를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반부를 독립시켰다면 정토쇠의 신분해방 과정을 통해 인간의 자유를 구축하는 전근대적 신분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진전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를 독립시켰더라면 추노를 둘러싼 추노갈등은 주인과 노비의 의식전환이 없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도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삼강문>은 이 둘을 뚜렷한 목적 없이 무리하게 결합함으로써 전망 부재의 암담한 현실을 주조하고 말았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어정쩡한 결합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정토쇠 부자의 이진사 부자에 대한 태도이다. <삼강문>은 정토쇠 부자의 상반된 행위를 통해 주인을 충심으로 섬긴 노비에게는 신분해방의 은전이 돌아가고, 주인에게 대항하거나 주인을 살해한 노비에게는 준엄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극히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작가가 정토쇠에게 유별난 애정을 보이며 그를 끝까지 반역의 대열에 가담시키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삼강문>은 노비를 주인공으로 삼아 신분해방을 착실히 이루어가는 노비계층의 현실대응력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분명 이 작품은 노비서사의 최대치를 보여준 작품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기존 노비서사의 진부함에 일대 반격을 가한 <삼강문>의 신선한 충격은 후반부에

와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지긋지긋한 보수성이 다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삼강문>을 읽은 소감이 개운치 않음은 바로 이 때문이다. 비유컨대, 정토쇠가 근대로 진입하는 문밖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대붕이 그 문 앞에 이유 없는 불을 질렀고, 정토쇠를 끝까지 이끌어야 할 작가는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대붕을 죽이는 통속의 길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믿었던 작가에게 발등을 찍힌 격이지만, 죽대 없는 작가에게 통속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주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Ⅲ. <삼강문>에 나타난 최찬식의 작가의식

앞서 언급했듯이, <삼강문>은 작가가 창작한 전반부와 전대소설을 수용한 후반부가 결합된 작품이다. 최찬식은 전반부를 통해 노비 정토쇠의 신분해방 과정을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점만을 두고 보면 <삼강문>은 전대의 어느 추노계 소설도 성취하지 못한 과업을 이룬 셈이다. 그런데 최찬식은 이 작품의 후반부에서 전대소설의 서사논리를 수용하여 대붕의 좌절을 함께 그려내고 있다. 정토쇠의 성공과 대붕의 좌절, 신분해방을 열망했던 두 노비의 대조적인 결말을 통해 최찬식은 과연 무엇을 말하려 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그의 작가의식을 구명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삼강문>은 유독 ‘이진사의 추노여정’과 ‘기동의 복수여정’을 상당한 분량으로 그려내고 있다.²⁷⁾ 이 부분은 <살신성인>에서 물려받은 것이지만, 둘 사이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살신성인>은 ‘복수설 유형’의 추노설화를 별다른 변개 없이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 묘사가 부족하고 사건의 대략을 단선적으로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소설을 표방했음에도 소설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작품이 되고 말았다.²⁸⁾ 이에 비해 <삼강문>은 정토

27) <삼강문>의 전체 지면에서 서두부와 결말부를 제외하면 ‘정안동의 신분상승 과정’이 32면, ‘이진사의 추노여정’과 ‘기동의 복수여정’이 97면을 차지하고 있다.

28) 정준식, 『추노계 야담의 소설화와 <살신성인>』, 『한국문학논총』 제19집, 한국문학회, 1996, 239-257쪽.

쇠의 신분해방 과정을 새롭게 창조함은 물론, 이진사의 추노여정과 기동의 복수여정을 현실의 논리에 입각하여 사실적으로 재현해내고 있다. <삼강문>이 노비 정안동을 자각한 인물로 설정하여 그의 신분해방 과정을 긍정적으로 그려낸 점은 역사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소설적 성취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수많은 추노설화와 추노계 소설이 노비들의 좌절만을 반복적으로 주조한 데 비하면, 정또쇠의 능동적이고 자신에 찬 신분해방 과정을 탁월하게 그려낸 <삼강문>은 분명 노비서사의 압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전반부에만 한정해서 내려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삼강문>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의 논리를 꼼꼼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 작품이 전·후반을 통해 신분해방을 열망하던 조선 후기 노비계층의 현실대응 방식을 대조적으로 그려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정또쇠처럼 현실적 역량을 충분히 갖춘 다음 주인과의 타협 속에서 주도면밀하게 일을 추진할 경우 신분해방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대봉처럼 주인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필사적으로 대항할 경우 필요 이상의 과장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삼강문>의 작가는 후자보다 전자에 더 비중을 두으로써 투쟁을 통한 신분해방보다 주인과 노비의 타협을 통한 점진적인 신분해방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 후기 도망노비의 추쇄과정에서 호강양반은 勒贖·再贖·疊贖 등의 비리추노를 자행한 반면, 몰락양반은 노비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욕을 당하거나 살해되기 일쑤였다. <삼강문>의 작가는 조선 후기의 이와 같은 현실을 지양하고 주노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던 바, 정또쇠가 긍정되고 대봉이 부정되는 이유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이러한 현실인식은 노비의 입장을 배제한 것이기에 뚜렷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主人家에 대한 정또쇠 부자의 상반된 태도는 주인의 입장도 노비의 입장도 아닌 조선 후기의 객관적 현실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평가해야 옳다. 이진사에게 성심을 다한 정또쇠가 손쉽게 신분해방을 이룬 것이나, 이진사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한 대봉이 신분해방에 실패하고 처형된 것은 모두 주인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봄으로써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이다. 여기에는 忠·逆의 논리만 드러날 뿐 조선 후기 노비의 현실적 처지에 대한 인식은 결

여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정또쇠 부자의 행위를 노비의 입장에서 보면 해석은 달라진다. 자신의 신분해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한 대봉은 그 승패와 상관없이 근대를 지향한 ‘문제적 개인’이 되며, 신분해방을 이룬 뒤에도 끝내 주노관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또쇠는 근대와 전근대를 오가며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머뭇거리는 ‘어정쩡한 인물’이 되고 만다.

조선후기의 객관적 현실에서 볼 때, 노비계층의 신분해방은 양반층의 시혜나 의식변화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을 대상으로 한 노비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가져온 필연적 산물이다. 양반들은 오히려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노비를 거느리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사회에서 노비가 신분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합법과 불법의 두 방법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비는 도망이라는 불법적인 길을 택했다. 도망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노비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긴 했지만, 항상 주인의 추쇄에 대비해야 했던 만큼 위험 부담도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비들의 개별적인 투쟁이 결국 갑오년(1894)의 신분제 폐지로 귀결되었으니, 조선후기의 역사를 노비신분해방의 역사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또쇠의 신분해방 과정을 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없지 않다. 이진사의 지나친 시혜도 그렇고 노비가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한다는 설정도 그렇다. 이에 비해 대봉의 행위는 추노나 온 주인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조선후기 도망노비의 현실대응방식을 연상케 한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대봉을 통해 자각한 노비, 성장한 노비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애써 대봉을 외면하고 정또쇠를 편들었으니, 이런 작가에게 노비의 진정한 해방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삼강문>은 후반부에 이르러 전대소설을 답습한 나머지 초반의 문제의식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채 통속적 결말로 전락하고 말았다. 원래 추노계 소설은 주인에게 대항한 노비를 준엄하게 처단하는 극단적인 결말로 일관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 신분제를 고수하려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고착화된 관념이 낳은 결과이다. 추노계 소설의 작가들은 오직 주인의 입장에 서서 추노갈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노비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들은 노비의 현실적 처지에 대한 깊은 인식이 결여된 채, 주인을 살해한 노비를 단순히 악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문란해진 중세적 신분질서

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²⁹⁾ <삼강문>의 작가 또한 이와 같은 통속적 결말방식을 취함으로써 애써 구축한 성장한 노비, 바람직한 노비형상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과오를 자처했다. 때문에 우리는 <삼강문>을 통해 근대와 전근대를 무리하게 착종해놓고 뚜렷한 지향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얼치기 개화꾼 최찬식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삼강문>의 소설사적 평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해 두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삼강문>은 추노계 소설 중 유일하게 노비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의 내밀한 고민과 깊은 문제의식을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다. 노비계층의 신분해방을 위한 투쟁이야 조선후기의 추노설화와 추노계 소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노비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근대적 신분제의 모순에 저항하는 ‘자각한 노비’의 전형을 창출한 작품은 <삼강문>뿐이다. <삼강문>은 조선후기 사노비들의 인간적 자각과 그에 기초한 신분해방을 위한 투쟁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가감 없이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인과 노비의 신분갈등이 근대전환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현실적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삼강문>은 추노계 소설 작가들이 끝내 완고한 보수성을 완전히 청산할 수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작품이다. 추노 소재는 설화, 고전소설, 신소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용되었지만, 작가들은 하나같이 노비의 신분해방이 단 한 번도 성사되지 못하는 어두운 전망만을 도출할 뿐이었다. <삼강문>은 추노계 소설 중 마지막 시기의 작품이면서도 이와 같은 부정적 전통을 청산하지 못한 채 주인을 대상으로 한 노비의 투쟁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통속적 교훈을 환기함으로써, 조선후기 사노비의 뿌리 깊은 한을 외면하고 말았다.

29) 정준식, 『추노계 소설의 형성과 전개』, 세종출판사, 2004, 235-252쪽.

IV. 마무리

이 글에서는 그동안 연구자들의 관심권 밖에 있었던 최찬식의 <삼강문>을 대상으로 삼아 작품의 구성방식과 작가의식을 검토하고, 이 작품이 추노계 소설의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았다. 앞서 논의된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삼강문>은 추노계 소설을 계승한 작품이면서 작가의 창작성 또한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수설 유형’의 추노설화에서 촉발된 추노계 소설은 <김학공전>, <신계후전>, <탄금대>, <박만득전>으로 이어지는 한 계열과 <살신성인>, <삼강문>으로 이어지는 다른 한 계열로 분화되었다. 이 가운데 <삼강문>은 <살신성인>의 서사구조를 후반부로 수용하는 한편 최찬식의 창작 부분을 전반부로 삼은 작품이다.

2. 조선후기 노비서사의 한 축을 이루는 추노계 소설은 노비의 신분해방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면서도 언제나 노비의 좌절만을 그려내기 일쑤였다. 그에 비한다면 <삼강문>은 성장한 노비, 자각한 노비의 신분해방 과정을 현실의 논리에 입각하여 탁월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소설적 성취가 미약한 것은 작가의 창작 부분에 전대소설의 서사구조를 무리하게 결합해 놓았기 때문이다. <삼강문>은 노비를 주인공으로 삼아 신분해방을 착실히 이루어가는 노비계층의 현실대응력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분명 이 작품은 노비서사의 최대치를 보여준 작품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기존 노비서사의 보수성에 일대 반격을 가한 <삼강문>의 신선한 충격은 후반부에 와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지긋지긋한 보수성이 다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삼강문>은 후반부에 이르러 전대소설을 답습한 나머지 초반의 문제의식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채 통속적 결말로 전락하고 말았다.

3. 원래 추노계 소설은 주인에게 대항한 노비를 준엄하게 처단하는 극단적인 결말로 일관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 신분제를 고수하려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고착화된 관념이 낳은 결과이다. <삼강문>의 작가 또한 이러한 결말방식을 취함으로써 애써 구축한 성장한 노비, 바람직한 노비형상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과오를 자처했다. <삼강문>을 통해 우리는 근대와 전근대를 무리하게 착종해 놓고 뚜렷한 지향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열치기 개화꾼 최찬식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된다.

4. <삼강문>은 추노계 소설 중 유일하게 노비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의 내밀한 고민과 깊은 문제의식을 탁월하게 그려낸 작품이면서도 추노계 소설 작가들이 완고한 보수성을 완전히 청산할 수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요컨대 <삼강문>은 주인을 대상으로 한 노비의 투쟁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통속적 교훈을 환기함으로써, 조선후기 사노비의 뿌리 깊은 한을 외면하고 말았다.

주제어 : 삼강문, 최찬식, 신분해방, 추노갈등, 노비서사, 구성방식, 작가의식

참고문헌

최찬식, <삼강문>, 영풍서관 간행(138면): 1918.11.11(연세대 도서관 소장)
<어복손전>, 『제국신문』 연재: 1906.10.10~12.31

전형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89, 182~199쪽.

정준식, 『추노계 야담의 소설화와 <살신성인>』, 『한국문학논총』 제19집, 한국
문학회, 1996, 239~257쪽.

정준식, 『추노계 소설의 갈등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고소설연구』 제7집, 한국
고소설학회, 1999, 205쪽.

정준식, 『추노계 소설의 형성과 전개』, 세종출판사, 2004, 13~276쪽.

정준식, 『피쟁이 하인 설화의 형성과정과 전승양상』, 『한국 노비서사의 논리와
미학』, 월인, 2005, 237쪽.

지승중, 『조선후기 주노관계와 노비통제』, 『한국 사회구조의 전통과 변화』, 문
학과지성사, 1994, 63~65쪽.

최원식, 『1910년대 계몽문학의 두 양상』,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107쪽.

<Abstract>

Writer's Consciousness and Narrative Structure of <Samgangmoon(삼강문)>

Jung, Jun-Sik

This paper intended to review writer's consciousness and narrative structure of <Samgangmoon> by Choi Chan-shik, which few studies have been made so far. <Samgangmoon> inheri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vels to depict chasing after runaway slaves shows excellence of the writer's creativeness to a larger degree. The novels to describe chasing after runaway slaves are originated from fairy-tales of chasing after runaway slaves in the form of 'avenge stories' are divided into roughly two types; one includes <Kimhakgongchon(김학공전)>, <Shinkaehuchon(신계후전)>, <Tangumdae<탄금대)>, and <Parkmandukchon(박만득전)>; the other develops into <Salshnsungin(살신정인)> and <Samgangmoon(삼강문)>. Among them, <Samgangmoon> adopts narrative structure of <Poksoosul(복수설)> for the latter half, while created story by Choi Chan-shik being placed in the first half. The work emphasizes the ability of slaves as a main character to face with reality by showing their efforts to achieve freedom in the most outstanding manner. In this regard, it can be said that this novel represents the perfection of the narratives of slaves. However, fresh shock of <Samgangmoon> to conservativeness of the existing narratives of slaves is replaced with tiresome conservativeness in the end. <Samgangmoon> follows the tradition of the previous novels at the latter half too much to maintain the consciousness of problem in the beginning to the end, ending up with a popular conclusion

Key Words : Samgangmoon, Choi Chan-shik, emancipation of slaves,
conflict of master and slaves, narrative of slaves, narrative
structure, writer's consciousness